

14.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고 (572-592)

14. 敏達, 用明, 崇峻

敏達天皇 卽位前紀 淳中倉太珠天皇 天國排開廣庭天皇第二子也 母曰 石姬皇后 石姬皇后 武小廣國押盾天皇女也 天皇不信佛法 而愛文史 下133

敏達天皇 元年夏四月 ... 宮于百濟大井 以物部弓削守屋大連爲大連如故 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 五月 ... 高麗使人 ... 天皇 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諸史 於三日內 皆不能讀 爰有船史祖王辰爾 能奉讀釋 由是 天皇與大臣俱爲讚美曰 勤乎辰爾 懿哉辰爾 汝若不愛於學 誰能讀解 宜從今始 近侍殿中 旣而 詔東西諸史曰 汝等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辰爾 又高麗上表疏 書于烏羽 字隨羽黑 旣無識者 辰爾乃蒸羽於飯氣 以帛印羽 悉寫其字 朝廷悉異之 下133-135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威德王 十九年 遣使入齊朝貢 三下72

<주14-1>

574년 겨울 10월, 우마꼬 대신을 키비로 보내, 시라위의 미야케와 타베(田部)를 확장 시켰다. 우마꼬는 타베 구성원들의 명부를 만들어, 시라위의 후비토 이츠에게 주었다. 또 왕진이의 동생에게, 쓰 후비토 라는 카바네 직위를 주었다.

(1) 왕인의 후손 왕진이

[16대 왕] 비다쓰는, [15대] 킨메이 왕과 [14대] 센카 왕의 딸이며 킨메이의 조카인) 이시 왕후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비다쓰 왕은 불법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572년 4월, 그는 왕위에 오르자 (오늘날의 나라현 북 카즈라키 군 廣陵町 百濟에 해당하는) 야마토 땅의 쿠다라 오호위(百濟 大井)라는 곳에 왕궁을 지었다.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 모리야 대련을 전과 마찬가지로 대련으로 삼고, 소가 씨족의 우마꼬를 대신으로 삼았다. 당시 우마꼬의 카바네는 스쿠네이었다.

572년 5월, 비다쓰 왕은 고구려 평원왕이 보낸 사신이 가지고 온 서신을 우마꼬 대신에게 주면서, 모든 후비토(史)들을 불러 모아, 그 서신을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읽지를 못했다. 그때, 유독 후네 후비토(船史)의 시조인 왕진이 만이 그 서신을 읽고, 뜻을 해석할 수 있었다. 왕은 왕진이를 칭찬 했다: “너마저 배우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누가 이 서신을 읽고 해석 할 수 있었으랴? 너는 이제부터 대궐에서 나를 가까이 모셔라.” 왕은 동과 서의 모든 후비토들 에게 말 했다: “너희들이 익혔다는 본업이 모두 허사로구나. 너희들은 수가 그렇게 많은데, 왕진이 한 명에도 이르지 못하는구나.”<주14-1>

고구려 사신이 가지고 온 서신에는 까마귀 깃털에 글을 쓴 것도 있었다. 그런데 깃털이 검정 색이라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다. 왕진이는 그 깃털을, 밥 지을 때 나오는 수증기에 쪄낸 다음, 비단에 글자를 찍어내서 읽었다. 조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다. 속일본기 기록에 의하면, 왕진이는 왕인의 후손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백제 위덕왕은 572년에 사신을 제

나라에 보내 조공을 하였다.

575년 여름 4월, 신라, 임나, 백제에 각각 사신을 보냈다. 그 해, 점쟁이에게 명해 왕자들의 집터를 보라고 했더니,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해당하는, 오사타(譯語田)에 왕궁을 지었다.

(2) 오호와케 왕(大別王)의 백제 파견

576년, 히로 왕후가 죽자, 비다쓰 왕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카시키야를 왕후로 삼았다. 그녀가 후에 [19대] 스이코 여왕이 된다. 그녀의 낳은 만딸은 (그녀의 친 오라버니인 17대 요오메이 왕의 아들) 쇼오토쿠 타이시에게 시집을 가고, 네 번째 딸은 [20대] 조메이 왕에게 시집을 간다. 성덕 태자는 스이코 여왕의 조카인 동시에 사위인 것이다. 야마토 왕실의 근친결혼 관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에 달했던 것 같다.

577년 2월, 두 개의 베를 설치했다. 5월, 오호와케(大別) 왕을 파견해 백제국의 재(宰)로 했다. 일본서기는 왕(王)이라는 한자를 “오호 키미(大君?)”라고 읽었다.

일본서기는, 왕의 사람(王人)이 명을 받고 삼한[백제, 신라, 가야]에 사신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 재라 부른다고 주석을 달았다. “사신”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한국의 “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고, 일본서기는 덧붙여 말했다.

577년 11월, 백제왕은 오호와케 왕 등 야마토로 귀환하는 사신들 편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문과 이를 해설하는 글 몇 권, 또 계율의 사범인 고승, 선종(禪宗)의 법리에 통달한 법사, 비구니, 주금사(呪禁師), 불상을 만드는 기술자, 절을 짓는 건축 기술자, 등 6인을 보냈다. 이들은 곧 나니하의 오호와케 왕사(大別王寺)에 배치되었다.

일본서기는 별(別)이라는 한자를 “와케”라고 읽는다. 이제부터 무라야마 와 밀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와케 라는 어휘는 그 어원이, 군주 혹은 봉건 영주를 뜻

敏達天皇 三年冬十月 遣蘇我馬子大臣於吉備國 增益白猪屯倉與田部 卽以田部名籍 授于白猪史膽津 ... 詔船史王辰爾弟牛 賜姓爲津史 下 137-139

敏達天皇 四年 夏四月 遣吉士金子使於新羅 吉使木蓮子使於任那 吉士譯語彥使於百濟 六月 新羅遣使進調...并進多多羅 須奈羅 和陀 發鬼 四邑之調 是歲 命卜者 占海部王家地與絲井王家地 卜便襲吉 遂營宮於譯語田 是謂幸玉宮 冬十一月 皇后廣姬薨 下139

敏達天皇 五年 春三月 有司請立皇后 詔立豐御食炊屋姬尊爲皇后 是生二男五女其一曰菟道貝蛸皇女 是嫁於東宮聖德...其六曰田眼皇女 是嫁於息長足日廣額天皇 下139-141

敏達天皇 六年 春二月 詔置日祀部私部 夏五月 遣大別王與小黑吉士宰於百濟國 王人奉命 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言使也 餘皆倣此 大別王未詳所出也 冬十一月 百濟國王 付還使大別王等 獻經論若干卷 并律師 禪師 比丘尼 呪禁師造佛工 造寺工 六人 遂安置於難波大別王寺...十年 春潤二月 蝦夷數千 寇於邊境... 下141

稻荷山古墳鐵劔金象嵌銘

(表)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祖上
名意富比跪 其兒多加利足尼 其兒
名弓己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
居 其兒名沙鬼獲居 其兒名半弓比

(裏)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
臣世世爲杖刀人 首奉事來至今 獲
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
天下 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
也

船山古墳出土太刀 (治)天下獲...鹵
大王世奉爲(事)典曹人名(無)利工
八月中用大鑄釜并四尺.刀八十練六
十.三寸..刀 服此刀者長壽子孫洋洋
得.思也不失其所統作刀者名伊太.書
者張安也

하는, 터어키어의 백, 몽골어의 बे기, 만주어의 베일레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Murayama and Miller, 1979) 이제 오호와 케(大別) 왕의 옛 선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관동의 사이타마(埼玉) 현에 위치한 이나리아마(稻荷山) 고분에서 1968년에 출토된 칼에는, 115개의 한자가 칼날 양면에 금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 1978년에 밝혀졌다. “백제식 말”로 적은 명문의 내용은: “신해년[471년] 7월중에 적는다(七月中記). 위와케(乎獲居) 오미(臣)의 옛 선조의 이름 오호히꼬(意富比跪); 그의 자식의 이름, 그의 자식 이름와케, ...와케, ...와케,, 그 자식 이름 위와케 오미. 우리는 오늘날까지 대대로 칼잡이(杖刀人)의 우두머리(首)로 봉사해 왔다. 나는 와카타 기로대왕(獲加多 支鹵大王)의 조정이 사귀궁에 있을 때, 천하의 통치를 보좌했었다. 이제 백 번을 두들겨서 날카롭게 한 칼(百練利刀)을 만들게 하여, 나의 봉사의 근원을 기록한다.”

여기서 “가지지, 혹은 가를지(支)”라는 글자는 “기” 또는 “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로대왕은 개로(蓋鹵)대왕(455-475년)을 지칭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일찍이 461년에 도래한 곤지는 개로왕의 동생이다.) 와카타 기로대왕이라는 표현은 1873년에 북 큐우슈우 쿠마모토 현의 후나야마(船山) 고분에서 출토된 칼의 명문에서도 나온다(△天下獲△△鹵大王世奉爲...). 일본열도의 동과 서에서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유물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서기 신공황후 섭정62년 조에 인용된 백제기(百濟記)에는 소쓰 “히꼬”(襲津彦)가 사지 “비궤”(沙至比跪)로 쓰여져 있다. 일본서기 케이타이 7년 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는, “오” 시야마(押山)가 “의” 사이마(意斯移麻)로 쓰여져 있다. 의(意)라는 글자는 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사기에서 의부(意富)는 오호(大)를 표시한다.

“신해년 7월”과 “기(記)”라는 글자 사이에, 처격(處格) 어미(語尾)로, “중(中)”이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것은, 한국의 4세기 중엽이후의 비문들에서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방식이다. (이기문, 1972: 48-49 참조)

와케(獲居)에서 “케”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 거(居)라는 글

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본서기 킨메이 6년 조에, 백제가 (545년에) 불상을 만들어 보내줄 때, 원문(願文)에 삽입한 미야 “케” (彌移居)라는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한자의 거(居)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이다.

무라야마 와 밀러 교수는, 115개의 한자로 된 이나리야마 칼 명문에 (분명히 중국어가 아니며) 고대 백제어가 틀림없는, 46개의 음절을 표시하는 (표음문자로 사용된) 22개의 상이한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주 서툰 필체를 가지고 “백제식 말”을 그대로 명문으로 새긴 사람이나, 칼의 임자, 그리고 이 칼이 출토된 고분에 묻힌 사람의 기원이 모두 백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577년 7월, 백제 위덕왕은 사신을 진(陳)나라에 보내 조공을 하였다. 11월에는 우문 부족의 주(周)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578년에도 주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백제가 중국의 남조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조 국가들과도 통교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578년, 우지 공주로 하여금 이세에서 마쓰리(祠)를 시중들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케헤 왕자와 정을 통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해임이 되었다.

579년, 신라는 지질정 나말과 함께 불상을 보냈다.

581년, 에미시 수천 명이 변경을 침범했으나 곧 평정되었다.

삼국사기를 본다. 581년, 백제 위덕왕이 수나라 (581-619년)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니, 수의 고조가 조서를 내려 위덕왕을 상개부 의동삼사 대방군 공으로 삼았다.

(3) 달솔 일라

583년, 비다스 왕은 당시 백제에 살고 있던 달솔 일라가 현명하고 용감하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가야를 부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키 땅의 국조) 오시카쓰와 (키비 땅의 아마베 아타히) 하시마를 백제에 보내 일라를 데려오도록 했다. 달솔 일라는 일찍이 센쿠와왕 때에 바다건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威德王 二十四年 秋七月 遣使入陳朝貢...十一月 遣使入于文周朝貢 二十五年 遣使入于文周朝貢 三72

敏達天皇 七年 春三月 以菟道皇女侍伊勢祠 卽森池邊皇子 事顯而解下141

敏達天皇 八年 冬十月 新羅遣柁叱政奈末進調 并送佛像 下141

敏達天皇 十年 春潤二月 蝦夷數千寇於邊境 由是 召其魁帥綾糟等 ... 綾糟等懼然恐懼...事奉天闕 下141-143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威德王 二十八年 王遣使入隋朝貢 隋高祖詔拜王 爲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 三72

敏達天皇 十二年 秋七月 詔曰 屬我先考天皇之世 新羅滅內官家之國 先考天皇 謀復任那 不果而崩 不成其志 是以 朕當奉助神謀 復興任那 今在百濟 火葦北國造阿利斯登子達率日羅 賢而有勇 故朕欲與其人相計 乃遣紀國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嶋 喚於百濟 冬十月 紀國造押勝等還自百濟復命於朝曰 百濟國主 奉惜日羅 不肯聽上 是歲 復遣吉備海部直羽嶋 召日羅於百濟 羽嶋既之百濟 欲先私見日羅 獨自向家門底 俄而有家裏來韓婦 用韓語言 以汝之根 入我根內 卽入家去 羽嶋便覺其意 隨後而入 於是日羅迎來 把手使坐於座 密告之曰 僕竊聞之 百濟國主 奉疑天朝 奉遣臣後 留而弗還

所以 奉惜不肯奉進 宜宣勅時 現嚴
 猛色 催急召焉 羽嶋乃依其計 而召
 日羅 於是 百濟國主 怖畏天朝 不
 敢違勅 奉遣以日羅恩率德爾余怒奇
 奴知參官柁師德率次千德水手等 若
 千人 日羅等行到吉備兒嶋屯倉 朝
 庭遣大伴糠手子連 而慰勞焉 復遣
 大夫等於難波館 使訪日羅 是時 日
 羅... 又奏言 百濟人謀言 有船三百
 欲請筑紫 若其實請 宜陽賜予 然則
 百濟 欲新造國 必先以女人小子載
 船而至 國家 望於此時 壹伎對馬
 多置伏兵 候至而殺 莫翻被詐 每於
 要害之所 堅築壘塞矣 於是 恩率參
 官 臨罷國時 舊本 以恩率爲一人
 以參官爲一人也 ... 德而等晝夜相
 計 將欲殺 時日羅 ... 言畢而死 乃
 以妻子 居于石川百濟村 水手等居
 于石川大伴村 收縛德爾等 置於下
 百濟河田村 ... 悉召日羅眷屬 賜德
 爾等 任情決罪 ... 受而皆殺 ... 以
 日羅移葬於葦北 下143-147

너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히 땅의 아시키타 의 국조) 오사카 베 아리사등의 아들이다. 그러나 백제왕은 일라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돌려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

비다츠 왕은, 일라를 데려오기 위해, 하시마를 또 다시 파견했다. 하시마는 백제에 도착하자, 일라 본인을, 자기 자신이 직접 먼저 만나보려고, 그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집안으로부터 한부(韓婦)가 나와 한어(韓語)를 사용해 “당신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 고 말하고, 곧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시마는 금방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일라가 마중을 나왔다. 그는 하시마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은밀히 말 했다: “내가 전해들은 바로는, 나를 귀국시키면 야마토 조정이 다시 돌려보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백제 국왕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보내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요. 그러니 비다쓰 왕의 말씀을 전할 때, 정색을 하고서 아주 시급하게 보내 달라 하시오.”

당시 위덕왕은 비다쓰 왕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일라를 보내주었다. 백제는 일라와 함께, 은술 덕이, 참관, 배의 키를 조종하는 사람, 배 사공 등, 약간의 사람들을 보냈다. 얼마 후 일라는 은술 덕이와 참관의 손에 살해되었다.

일라의 처자는 이시카하 의 쿠다라 마을(百濟村)에 거처하게 되었다. 덕이 등은 아래쪽 쿠다라의 카하타 마을에 가두어 놓았었는데, 후에, 복수를 하려는 일라 일족들에 의해, 덕이 일행이 모두 살해되었다. 일라의 시신은, 자기 부친의 출신지인 아시키타에 옮겨져 매장되었다. 일본서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 못할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다.

여기서, 한부(韓婦)가 나와서 (좀 점잔은 말 같지는 않지만) 한어(韓語)를 사용해 “당신의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 고 말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서(周書)에 의하면, 백제 지배층은 왕을 어라하(於羅瑕)라 부르고 피지배층은 건길지(鞮吉支)라고 불렀다. 따라서, 부여-고구려 계통의 언어와 삼한(마한) 계통의 언어 사이에는 표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어(韓語)라는

표현은 부여-고구려 계통 언어에 대비시킨 마한의 언어인 것 같다. 물론 백제어와 (진한의 후예인) 신라어도 아주 가까운 친족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제의 지배층 말과 피지배층 (마한)말사이의 차이라는 것 역시 의사소통 자체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기문, 1972: 36-37 참조)

(4)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고

584년, 백제로부터 돌아온 카후카 씨족의 (성명 미상) 오미는, 미륵 석상을 한 개 가지고 왔었다. 사해키 씨족의 (성명 미상) 무라지도 불상을 한 개 가지고 왔다. 이 두 개의 불상을 구해서 얻은 소가 씨족의 우마꼬는, (유우라쿠 때 백제에서 건너온 이마키 아야 씨족의 후손인) 쿠라쓰쿠리(鞍部)의 스구리(村主) 시바타치토 와 (야마토 아야 씨족 계열인 이케베 씨족의 아타히) 히타를 온 사방에 보내, 불교 수행자를 찾아오게 했다.

하지만 시바타치토 와 히타는, 아무 데서도 수행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단지 하리마 땅에서 고려해편 이라는 이름의 환속한 승려 한사람을 구하였다. 우마꼬 대신은 그를 스승으로 삼고, 시바타치토 의 11살 난 딸 시마를 출가시켜, 젠신 아마(尼)라 불렀다. 또 젠신 아마의 제자로, 2명을 출가시켰다. 그 중 한 명은 아야히토(漢人) 야보의 딸 토요메 이었는데, 젠자우 아마 라고 불렀다. 다른 한 명은 니시코리(錦織) 쓰후의 딸 이시메 인데, 에젠 아마 라고 불렀다.

우마꼬는 홀로 불법에 귀의하여, 이들 세 명의 여승들을 받들어 모셨다. 우마꼬는 히타 와 시바타치토 에게 부탁해서, 세 명의 여승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양케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 동쪽에 불전을 차려놓고, 미륵 석상을 안치하였다. 우마꼬는 이 세 명의 여승들에게 청하여 대 법회를 열도록 했다.

시바타치토는 불사리를 얻어 재 밥상에 올려놓았다. 재를 지낸 후, 이 사리를 우마꼬 에게 헌상 했다. 우마꼬는 사리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철판 위에 올려놓고 쇠망치로

敏達天皇 十二年 秋九月 從百濟來 鹿深臣 闕名字 有彌勒石像一軀 佐伯連 闕名字 有佛像一軀 是歲 蘇我馬子宿禰 請其佛像二軀 乃遣鞍部村主司馬達等池邊直水田 使於四方 訪覓修行者 於是 唯於播磨國得僧還俗者 名高麗惠便 大臣乃以爲師 令度司馬達等女嶋 曰善信尼 年十一歲 又度善信尼弟子二人 其一 漢人夜菩之女豐女 名曰禪藏尼 其二 錦織壺之女石女 名曰惠善尼 壺 此云都符 馬子獨依佛法 崇敬三尼 乃以三尼 付水田直與達等 令供衣食 經營佛殿於宅東方 安置彌勒石像 屈請三尼 大會設齋 此時 達等得佛舍利於齋食上 卽以舍利 獻於馬子宿禰 馬子宿禰 試以舍利 置鐵質中 振鐵鎚打其質與鎚 悉被摧壞 而舍利不可摧毀 又投舍利於水 舍利隨心所願浮沈於水 由是 馬子宿禰池邊水田司馬達等 深信佛法 修行不懈 馬子宿禰 亦於石川宅 修治佛殿 佛法之初 自茲而作 下149

敏達天皇 十四年 春二月 蘇我大臣 馬子宿禰 起塔於大野丘北 大會設齋 卽以達等前所獲舍利 藏塔柱頭 ... 蘇我大臣患疾 問於卜者 卜者對言 崇於父時所祭佛神之心也 大臣卽遣子弟 奏其占狀 詔曰 宜依卜者之言 祭祠父神 大臣奉詔 禮拜石像 乞延壽命 是是 國行疫疾 民死者衆 三月 物部弓削守屋大連 與中臣勝海大夫 奏曰 何故不肯用臣言 自考天皇 及於陛下 疫疾流行 國民可絕 豈非專由蘇我臣之興行佛法歟 詔曰 灼然 宜斷佛法 ... 物部弓削守屋大連 自詣於寺 踞坐胡床 斫倒其塔 縱火燔之 并燒佛像與佛殿 旣而取所燒餘佛像 令棄難波堀江 是日 無雲風雨 大連被雨衣 訶責馬子宿禰 與從行法侶 令生毀辱之心 乃遣佐伯造御室 喚馬子宿禰 所供善信等尼 由是 馬子宿禰 不敢違命 惻愴啼泣 喚出尼等 付於御室 有司便奪尼等三衣 禁錮 楚撻海石榴市亭 天皇思建任那 差坂田耳子王爲使 屬此之時 天皇與大連 卒患於瘡 故不果遣 詔橘豐日皇子曰 不可違背考天皇勅 可勤修乎任那之政也 又發瘡死者 充盈於國 其患瘡者言 身如被燒被打被摧 啼泣而死 老少竊相語曰 是燒佛像之罪矣 夏六月 馬子宿禰奏曰 臣之疾病 至今未愈 不蒙三寶之力 難可救治 於是詔馬子宿禰曰 汝可獨行佛法 宜斷餘人 乃以三尼 還付馬子宿禰 馬子宿禰 受而歡悅 嘆未曾有 頂禮三尼 新營精舍 迎入供養 或本云 物部弓削守屋大連 大三輪逆君 中臣磐余連 俱謀滅佛法 欲燒寺塔 并棄佛像 馬子宿禰 諍而不從 秋八月 天皇病彌留 崩於大殿 是時 起殯宮於廣瀨 馬子宿禰大臣 佩刀而誅 物部弓削

내리쳤다. 그러자 쇠망치는 산산조각이 나고, 사리는 멀쩡했다. 우마꼬, 히타, 시바타치토 등은 불법을 깊이 믿고, 끊임 없이 수행을 했다. 우마꼬는 이시카하 저택에 또 불전을 지었다. 이로부터 야마토 땅에 불법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585년 2월, 우마꼬 대신은 오호노 언덕 북쪽에 탑을 세우고, 대법회를 열었다. 시바타치토가 얻어 온 사리를 탑의 꼭대기에 넣어두었다. 그 달 말, 우마꼬는 병이 들었다. 점술사한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부친 때에 모셨던 불신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신은 자제를 보내, 왕께 그 점술사가 말한 내용을 전했다. 왕은 조서를 내려 “부친의 불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고 명했다. 대신은 분부대로 석상에 예배하면서, 수명의 연장을 빌었다.

당시, 나라안에 질병이 돌아 죽는 사람이 많았다.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모리야 대련과 나카토미 씨족의 카쓰미마헤쓰키미(大夫)는 상소를 했다: “어째서 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선왕 때부터 지금까지, 질병이 유행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소가 대신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소를 듣고, 왕은 불법을 믿지 못하도록 명했다.

585년 3월 30일, 유게모리야 대련은 직접 우마꼬가 지은 절에 가서, 의자에 걸터앉아, 사람들을 시켜 목탑을 잘라서 엎어놓고 불태워 버리도록 했다. 불상과 불전도 태워버렸다. 타다 남은 불상은 가져다가 나니하의 호리 강에 던져 버렸다. 그 날,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다. 대련은 비웃을 입어야 했다.

대련은 우마꼬와 그를 따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꾸짖으며 모욕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 우마꼬가 공양하던 세 여승을 데리고 오게 했다. 우마꼬는 감히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울면서, 여승들을 불러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여승들의 옷을 벗겨 잡아 가두고 매질을 했다.

그때, 비다츠 왕과 대련은 창병이 들었다. 나라안은 창병으로 죽는 사람으로 넘쳤다. 창병에 걸리면, 몸이 타는 것 같고, 두들겨 맞아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울부

짓다가 죽었다. 남녀노소가 몰래 서로 말 했다: “이것은 불상을 태워버린 죄 때문이 아닌가?”

585년 6월, 우마코는 왕께 아뢰었다: “신의 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불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우마코에게 말 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혼자서 불법을 섬겨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서는 세 여승을 되돌려 주었다. 우마코는 세 여승들에게 절을 하고, 그녀들의 불운을 슬퍼하면서도, 새삼 환희에 젖어 그녀들을 받아들였다. 새로이 사원을 짓고 그녀들을 공양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모리아 대련, (오호미와 씨족의) 사카후 키미, (나카토미 씨족의) 이하레 무라지 등이 함께 불법을 없애버릴 모의를 한 다음, 사탑을 불태우고 불상을 내다 버리려 했는데, 우마코가 이 음모에 반대를 하고 따르지 않았다 한다.

그 해 8월, 왕의 병환이 깊어져 드디어는 대전에서 돌아갔다. 빈소에서, 우마코는 칼을 허리에 차고 조사를 읽었다. 모리야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끝이 마치 참새가 화살에 꿰어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빈정댔다. 다음에는 모리야가 손발을 떨면서 조사를 읽었다. 그러자 우마코는 빈정대며 말 했다: “그놈의 떠는 손발에 방울을 달아매야 하겠구나.” 이 두 대신은 점점 더 상대방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복형 비다쓰 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요오메이(585-587년)왕은 킨메이 왕의 넷째 아들이었다. 왕은 불법을 믿으면서도, 신도를 존중했다(信佛法 尊神道). 일본 사회에서 불교와 신도가 공존 공영하는 전통이 세워진 것이다.

당시부터 60여 년 전의 신라 경우를 본다. 우선 삼국유사의 이차돈 편을 보자. 신라 법흥왕 14년(527년), 소신(小臣)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니, 그 해가 바로 천축의 달마대사가 중국 남경에 도착을 한 때다. 바로 같은 해에, 낭지 법사 또한 령취산에 자리를 잡고 법장(法場)을 열었으니, 위대한 종교가 흥하고 쇠함에 있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서로 감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守屋大連 听然而咲曰 如中獵箭之雀鳥焉 次弓削守屋大連 手脚搖震而誅 馬子宿禰大臣咲曰 可懸鈴矣 由是 二臣微生怨恨 三輪君逆 使隼人相距於殯庭 穴穗部皇子 欲取天下 發憤稱曰 何故事死王之庭 弗事生王之所也 下149-153

用明天皇 即位前紀 橘豐日天皇 天國排開廣庭天皇第四子也 母曰堅鹽媛 天皇信佛法尊神道 下155

三國遺事 卷第三 原宗興法 獸觸滅身 新羅本記 法興大王即位十四年 小臣異次頓爲法滅身 卽蕭梁普通八年丁未 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 是年朗智法師 亦始住靈鷲山開法 則大教興衰 必遠近相感一時 於此可信 遺203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十五年 肇行佛法 初納祇王
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 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 作窟室安置 ...
至毗處王時 有阿道和尚 與侍者三
人 亦來毛禮家 儀表似墨胡子 住數
年 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
經律 往往有信奉者 至是 王亦欲興
佛教 羣臣不信 喋喋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奏曰 請斬小臣 以定衆
議 王曰 本欲興道而殺不辜非也 答
曰 若道之得行 臣雖死無憾 王於是
召羣臣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
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即重罪 不敢奉詔
異次頓獨曰 ... 今聞佛教淵奧 恐不
可不信 王曰 ... 遂下吏將誅之 異
次頓臨死曰 我爲法就刑 佛若有神
吾死必有異事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怪之 不復非毀佛事 三
80-81

있다.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본다. 앞서 눌지왕 때 (417-458년)에 묵호자 란 중이 고구려에서 오매, 모례 란 사람이 자기 집에 토굴을 짓고 그를 모셨다. 소지왕 때 (479-500년)에 아도 란 중이, 세 사람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모례의 집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이 불경과 계율을 강독하자, 이따금 신자도 생겼다.

그로부터 얼마 후,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키려 했으나, 군신들이 믿으려 아니하므로, 왕은 주저했다. 527년, 근신 이차돈이 왕께, “만약 불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 군신들은, “요즘 보견대 중들이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걸치고서 궤변을 논하는 것이, 상도를 벗어난 행위가 틀림없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참소 했다. 그러자 유독 이차돈은 “불교는 그 뜻이 깊다 하오니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형리를 시켜 이차돈의 목을 베도록 하자, 이차돈은 “나는 불법을 위해 형을 받으니, 부처님이 만약 신령하시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목을 베자, “흰 젖” 기둥이 한 길이나 용솟음 쳤다. 여러 사람이 이를 보고, 다시는 불법을 반대하지 않았다. 528년, 신라에서 불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투르코-몽골 계통의 기마 유목민족들은 이적을 나타낼 때, “붉은 피” 대신 “흰 젖”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삼국사기에서 “흰 젖”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백제나 신라에 유목민족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당시까지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5) 백제에 가서 계를 받는 방법을 배우고

[16대 왕] 비다츠가 585년에 서거하자, 요오메이가 [17대] 왕위에 올라,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해당하

는) 야마토의 이하레 땅에 왕궁을 지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소가 씨족의 우마꼬를 대신으로,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모리야 무라지를 대련으로 삼았다.

586년 정월, 요오메이 왕은 이복 누이동생 하시히토 공주를 왕후로 삼았다. 그녀 소생의 맏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쇼오토쿠(厩戸, 聖德太子) 태자이다. 훗날 [19대] 스이코 여왕 때, 쇼오토쿠 태자는 동궁에 거처하면서, 여왕을 대신해 정사를 총괄하였다.

요오메이는 또, 소가 씨족의 이나메 대신의 딸을 왕비로 맞아, 스카테 공주를 낳았다. 왕은 공주를 이세 신궁으로 보내 일신(日神)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했다. 그녀는 스이코 여왕 때까지 37년 간 일신에 대한 제사를 받든 다음, 스스로 (소가 씨족의 본고장인) 카즈라키로 은퇴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587년, 요오메이 왕은 몸소 불교에 귀의할 생각을 말했다. 그러자 (모노노베 씨족의) 모리야 대련과 (나카토미 씨족의) 카츠미 무라지가 반대를 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토착신인 쿠니쓰 카미(國神)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공경해야 합니까?”

하지만 우마꼬 대신은 왕의 뜻을 따를 것을 주장하면서, 토요쿠니 법사를 왕에게 소개했다. 그러자 군신들이 우마꼬 편을 들어 모리야를 해치려 했다. 모리야는 아토에 있는 자기 집으로 피신을 했다. 대련은 우마꼬에게 사람을 보내, “군신들이 나를 도모하려 한다니, 나는 그만 물러나겠소”라고 말했다.

왕의 창병이 악화되었다. 그때, 시바타치토의 아들인 쿠라쓰쿠리의 타스나가 왕께 아뢰었다: “저는 임금님을 위해 출가를 하여 수도를 하고, 6장 높이의 불상과 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감동하였다. 지금 미나부치 의 사카타 절에 있는 목조 6장 불상과 케후지 의 보살이 바로 그가 만든 것이다. 왕이 서거하자 이하레 저수지의 위편에 장사를 지냈다.

[15대] 킨메이 왕의 다섯 명 왕비들 중 두 명이, 소가 씨족의 이나메 대신의 두 딸인, 키다시 와 오에 자매였다.

用明天皇 即位前紀 九月 天皇即天皇位 宮於磐余...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物部弓削守屋連爲大連 並如故... 以酢香手姬皇女 拜伊勢神宮奉日神祀 是皇女 自此天皇時 逮乎炊屋姬天皇之世 奉日神祀 自退葛城而薨 見炊屋姬天皇紀 或本云 三十七年間 奉日神祀 自退而薨元年春正月 立穴穗部間人皇女爲皇后 是生四男 其一厩戸皇子 更名豐耳聰聖德 或名豐聰耳法大王 或云法主王 是皇子初居上宮 後移斑鳩 於豐御食炊屋姬天皇世 位居東宮 總攝萬機行天皇事... 立蘇我大臣稻目宿禰女石村名爲嬪...生一男一女 ... 女曰酢香手姬皇女 歷三代以奉日神 下155-157

用明天皇 二年 夏四月... 天皇得病...曰 朕思欲歸三寶...物部守屋大連與中臣勝海連 違詔議曰 何背國神 敬他神也...蘇我馬子宿禰大臣曰 可隨詔而奉助 詎生異計 於是 皇弟皇子 引豐國法師... 物部守屋大連邪睨大怒 是時 ...急來 密語大連曰 今群臣圖卿 復將斷路 大連聞之 即退於阿都...謂馬子大臣曰 吾聞群臣謀我 我故退焉...天皇之瘡轉盛將欲終時 鞍部多須奈 司馬達等子也 進而奏曰 臣 奉爲天皇 出家修道 又奉造丈六佛像及寺 天皇爲之悲慟 今南淵坂田寺木丈六佛像 挾侍菩薩 是也 天皇崩于大殿...葬于磐余池上陵 下159-161

天國押波流岐廣庭天皇 娶檜桐天皇
之御子 石比賣命 生御子... 次沼名
倉太玉敷命... 又娶宗賀之稻目宿禰
大臣之女 岐多斯比賣 生御子 橘之
日命... 次 御氣炊屋比賣命... 又娶岐
多斯比賣命之姨 小兄比賣 生御
子... 次長谷部若雀命 ... 凡此天皇之
御子等 并二十五王 此之中 沼名倉
太玉敷命者 治天下 次橘之日命 治
天下 次 御氣炊屋比賣命 治天下
次長谷部若雀命 治天下也 并四王
治天下也 古338-340

欽明天皇 元年春正月... 立正妃武小
廣國押盾天皇女石姬爲皇后 是生二
男一女 長曰... 仲曰譯語田淳中倉太
珠敷尊(敏達) 少曰 ... 欽明天皇 二
年 春三月 納五妃 元妃 ... 次蘇我
大臣稻目宿禰女曰堅鹽媛 堅鹽 此
云岐挖志 生七男六女 其一曰大兄
皇子 是爲橘日尊(用明)... 其四曰
御食炊屋姬尊(推古)... 次堅鹽媛同母
弟曰小姊君 生四男一女... 其三曰泥
部穴穗部皇女 其四曰泥部穴穗部皇
子 其五曰泊瀨部皇子(崇峻) 下67-
69

崇峻天皇 卽位前紀 泊瀨部天皇
天國排開廣天皇第十二子也 母曰小
姊君 稻目宿禰女也 二年夏四月 橘
豐日天皇崩 五月 物部大連軍衆 三
度驚駭 大連元欲去餘皇子等 而立
穴穗部皇子爲天皇... 謀泄... 蘇我馬
子宿禰等 奉炊屋姬尊 詔佐伯連丹
經手 土師連磐村 的臣眞嚙曰 汝
等嚴兵速往 誅殺穴穗部皇子與宅部
皇子... 善信阿尼等 謂大臣曰 出家
之途 以戒爲本 願向百濟 學受戒法
是月 百濟調使來朝 大臣謂使人曰
率此尼等 將渡汝國 令學戒法了時
發遣 使人答曰 臣等歸蕃 先導國王

키다시가 낳은 맏아들이 [17대] 요오메이 왕이고, 넷째 딸이 [19대] 스이코 여왕이다. 오에가 낳은 아들 중 하나가 [18대] 스순 왕이다. 요오메이 와 스순도 이복 형제지간이지만, 킨메이 와 이시 왕후 사이에 낳은 [16대 왕] 비다츠 역시 요오메이 와 스순의 이복형인 것이다.

요오메이 왕이 587년 4월에 서거하자, 모노노베 대련은 다른 왕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에 왕비 소생인 아나호베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 했다. 그런데 이 음모가 누설되었다. 우마코 대신은 비다츠의 왕후 카시키야를 모시고, (사헤키 씨족의 무라지) 니후테, (하지 씨족의 무라지) 이하무라, (이쿠하 씨족의 오미) 마쿠히 등에게 조서를 내려, 아나호베 왕자를 죽여 버리도록 명령했다.

여승 젠신 등은 우마코 대신에게 말 했다: “출가를 하면 계(戒)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컨대 백제에 가서 계를 받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마코는 백제에서 사신이 오자, 이 여승들을 데리고 가서 계를 받는 법을 배우도록 해 주라고 청했다. 백제 사신은, 귀국해서 왕께 먼저 아뢴 다음에 여승들을 백제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소가 씨족의 우마코 대신은, 왕자와 군신들을 권하여 아에 (모노노베 씨족의) 모리야 대련 마저 없애버릴 것을 모의토록 했다. 마침내 하쓰세베 왕자, 우마야토 왕자(쇼오토쿠 태자), 우마코 대신 등은 군사를 이끌고 대련을 토벌하려 나아갔다.

모리야 대련은 자제들과 노비들을 모아 만든 군사(奴軍)를 동원해 완강하게 싸웠다. 우마야토 왕자와 우마코 대신 등은 나무로 사천왕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사천왕을 받들어 모시고, 절과 탑을 세워 불법을 널리 퍼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모리야 대련과 그 아들들을 모두 잡아 죽여 버릴 수 있었다.

이 난리가 평정된 후, 셋쓰 땅에 사천왕사를 만들고, 모리야 대련이 소유했던 노비의 절반과 그의 집을 분할해서 절에 귀속시켰다. 소가 대신도 자신이 한 맹세를 지켜, 아스카 땅에 호오코오지(法興寺)를 세우기로 했다.

587년 8월, 오에 왕비의 또 하나의 아들인 스순이 왕위에 올랐다. 스순은 예전대로 우마꼬를 대신으로 삼았다.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해당하는, 야마토의 쿠라하시 땅에 왕궁을 만들었다.

588년, 백제는 사신을 보내는 편에 승려 3인과 불사리를 보냈다. 백제는 또 은술 수신 등과 함께, 불사리, 령조 울사를 비롯한 5인의 승려들, 절을 짓는 기술자 2인, 로반(鑪盤)박사 장덕 백미순, 기와 박사 4인, 백가 라는 이름의 화공(畵工) 등을 보냈다.

우마꼬는 백제 승려들을 청해서 계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그 후, 젠신 여승 등은 백제 사신을 따라 배움의 길을 떠났다. 아스카의 키누누히 미야쓰코(衣縫造)의 조상인 코노하 라는 사람의 집을 헐고, 호오꼬오지(法興寺)를 짓기 시작했다. 이 곳 지명이 바로 아스카의 마카미 하라 이다.

589년, 미츠를 동쪽 산간지방으로 보내 에미시 나라와의 국경을 둘러보게 하고, 카리를 보내 동쪽 해안의 국경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오미를 북쪽으로 보내 코시 등과의 국경들을 돌아보게 했다.

남 중국에서는 일찍이 557년에, 진패선(陳霸先)이 왕승변(王僧辯)을 죽이고 양(梁)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후, 스스로 무제(557-559년)가 되어 진 왕조를 세웠었다. 그런데 수 나라가 북주(北周)를 대체하고 나서, 589년에 진을 평정하니, 드디어 중국대륙의 남과 북이 통일된 것이다.

590년 3월, 학문 여승 젠신 등이 백제로부터 돌아와 사쿠라위 절에 거주했다. 10월, 산에 가서 절을 지을 재목을 구해왔다. 오호토모 씨족의 젠토쿠, 오호토모 씨족의 시라키히메(新羅媛) 젠메에, 쿠다라히메(百濟媛) 메에쿠와아, 또 7인의 아야 씨족 사람들(漢人)이 여승이 되어 불교에 귀의했다. 쿠라쓰쿠리(鞍部) 시바타치토의 아들도 동시에 출가하여 법사가 되었다.

591년, (키 씨족의) 오마로 스쿠네, (코세 씨족의) 사루 오미, (오호토모 씨족의) 쿠히 무라지, (카즈라키 씨족의) 오나라 오미 등 4인을 대장군으로 삼고, 각 우지(氏氏)의 오미와 무라지 들을 부대의 비장(裨將) 들로 삼아, 2만여 군

而後發遣 亦不遲也 秋七月 蘇我馬子宿禰大臣 勸諸皇子與群臣 謀滅物部守屋大連 泊瀨部皇子竹田皇子廐戶皇子難波皇子春日皇子蘇我馬子宿禰大臣紀男麻呂宿禰巨勢臣比良夫膳臣賀柁夫葛城臣烏那羅俱率軍旅 進討大連... 大連親率子弟與奴軍 築稻城而戰...是時 廐戶皇子...乃斫白膠木 疾作四天王像置於頂髮 而發誓言 今若使我勝敵 必當奉爲護世四王 起立寺塔 蘇我馬子大臣 又發誓言 凡諸王大神王等 助衛於我 使獲利益 願當奉爲諸天興大神王 起立寺塔 流通三寶 誓已嚴種種兵 而進討伐... 而誅大連并其子等...大連兒息與眷屬 或有逃匿葦原 改姓換名者 或有逃亡不知所向者 時人相謂曰 蘇我大臣之妻 是物部守屋大連之妹也 大臣妄用妻計 而殺大連矣 平亂之後 於攝津國 造四天王寺 分大連奴半與宅 爲大寺奴田莊...蘇我大臣 亦依本願 於飛鳥地 起法興寺... 八月...炊屋姬尊與群臣 勸進天皇 卽天皇位 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如故 卿大夫之位亦如故 是月宮於倉梯下 161-167

崇峻天皇 元年春三月...百濟國遣使并僧惠總令斤惠寔等 獻佛舍利 百濟國遣恩率首信德率蓋文那率福富味身等 進調并獻佛舍利 僧聆照律師 令威 惠衆 惠宿 道嚴 令開等 寺工太良未太 文賈古子 鑪盤博士 將德白味淳 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 貴文昔麻帝彌 畵工白加 蘇我馬子宿禰 請百濟僧等 問受戒之法 以善信尼等 付百濟國使恩率首信等 發遣學問 壞飛鳥衣縫造祖樹葉之家 始作法興寺 此地名飛鳥眞神原 亦名飛鳥苔田 下169

崇峻天皇 二年秋七月 遣近江臣滿
於東山道使 觀蝦夷國境 遣內人臣
厲於東海道使 觀東方濱海諸國境
遣阿倍臣於北陸道使 觀越等諸國境
下169

崇峻天皇 三年春三月 學問尼善信
等 自百濟還 住櫻井寺 冬十月 入
山取寺材 是歲 度尼 大伴狹手彥連
女善德大伴狹手夫人新羅媛善妙百濟
媛妙光 又漢人善聰善通妙德法定照
善智聰善智惠善光等 鞍部司馬達等
子多須奈 同時出家 名曰德齊法師
下169

崇峻天皇 四年冬十一月 差紀男麻
呂宿禰巨勢猿臣大伴嚙連葛城烏奈
良臣爲大將軍 率氏臣連 爲裨將
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遣吉士
金於新羅 遣吉士木蓮子於任那 問
任那事 下171

崇峻天皇 五年冬十月 有獻山猪 天
皇指猪詔曰 何時如斷此猪之頸 斷
朕所嫌之人 多設兵杖 有異於常 ...
蘇我馬子宿禰 聞天皇所詔 恐嫌於
己 招聚儻者 謀弑天皇 是月 起大
法興寺佛堂與步廊 十一月 ... 馬子
宿禰 詐於群臣曰 今日進東國之調
乃使東漢直駒 弑于天皇 或本云 東
漢直駒 東漢直磐井子也 是日 葬天
皇子於倉梯岡陵 ... 遣驛使於筑紫將
軍所曰 依於內亂 莫怠外事 是月
東漢直駒 偷隱蘇我嬪河上娘爲妻
河上娘 蘇我馬子宿禰女也 馬子宿
禰 忽不知河上娘 爲駒所偷 而謂死
去 駒 汗嬪事顯 爲大臣所殺 下171

사를 거느리고 쓰쿠시로 나아가서 주둔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사신을 신라로 보내, 가야를 복원토록 할 의사가 있는 지 타진을 해보게 했다.

(6) 스순 과 후지노끼 고분

592년 10월, 산돼지를 잡아서 왕에게 바친 사람이 있었다. 스순 왕은 그 산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언제 썸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목을 이 산돼지의 머리처럼 잘라버릴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왕은 평상시와 다르게, 궁전 안에 많은 무기들을 비치했다.

우마꼬는 왕이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스순 왕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혐오감을 두려워하여,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의 살해를 모의했다. 그 달, 법흥사의 불당과 회랑이 착공되었다.

592년 11월, 우마꼬는 군신들에게 동쪽지방으로부터 거둔 조세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야마토 아야(東漢) 씨족의 아타히 코마를 시켜 스순 왕을 살해했다. 결국 우마꼬는 (자신의 사촌인) 오에 왕비가 낳은 아나호베 왕자와 스순 왕을 모두 살해해버린 셈이다.

그 날로, 살해된 왕의 시신을 장사지냈다. 한편, 역마 전령(驛使)을 쓰쿠시의 장군들에게 보내, 내란 때문에 대외 사업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달, (야마토 아야 씨족의 아타히) 코마는 우마꼬의 딸인 왕비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처로 만들었다. 우마꼬는 난리 통에 자기 딸이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코마가 왕비를 범한 것이 알려지자, 우마꼬는 코마를 죽여 버렸다. 스순왕은 우마꼬의 사위였었다.

나라현의 이카루가에 있는 후지노끼(藤木) 고분은,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스순(587-592년)의 무덤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키더(Kidder, 1989)에 의하면, 1959년에 법륜사의 말사(末寺)의 하나인 소오겐지(宗源寺)에서, 오래된 껌속을 뒤지다가, 날자가 엔포(延寶) 7년(1699년)으

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문서가 바로 후지노끼 고분을 스슌의 능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메이지 5년(1872년)까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스슌의 이름이 문서상에 나타났었고, 능이라는 표현은 1940년대 초까지도 계속 사용되었었다. 그 후, 어찌된 셈인지 천황 능이 아닌 것으로 재분류되어, 1985년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에 의하여 발굴이 되었고, 1988년 말에는 드디어 그 석관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었다.

후지노끼 고분에서는 천여 쪽이나 되는 갑옷의 철판 조각들, 줄지어 늘어놓은 말 장신구, 화살, 쇠 화살촉, 몇 개의 금동 장신구, 수 많은 스에키, 하지키 들이 출토되었다. 키더(1987)는, 마찌다 아키라 가 주장한 바대로, 후지노끼의 부장품이 남부 중국과 백제의 유물, 특히 무녕왕 (501-523년) 능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아주 흡사하며, 출토품의 대부분이 백제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지노끼 유물들은, 1982년 청주 신봉동 에서 발견된, 4세기 백제 고분군에서 나온 대량의 말 장식물, 등자, 철검, 쇠 화살촉 등과도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지노끼 고분의 석관에서 나온 부장품 가운데는, “이것의 소유자는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의 의자손(宜子孫) 세 글자가 새겨진 청동 거울이 있다. 백제의 무녕왕 능에서 발굴된 청동 거울에도 똑같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키더(1985, 1989)에 의하면, 후지노끼 고분에서 나온 청동 단검에 달려있는 손잡이는, 시기적으로 앞선 한국 출토품에서 그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양식화 된 나무를 묘사한 금동관 같은 것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Chapter 15 begins at 391.